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감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 마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격 있는 나무가 감나무다. 감나무 모습 중에서 가장 문기가 넘치는 모습은 뽀뽀 해두 붉은 감이 몇 개 달린 눈썹인 감나무 가지에 까치가 앉아 우는 새아침의 모습일 것이다. 다른 나무에 비해 실 가지가 굵은 감나무는 눈을 많이 받는다. 겹고 굵고 짙고 풍성한 가지에 가만가만 내려 눈은 소복하게 앉는다. 가지에 앉힌 눈이 녹을수록 감나무는 눈 녹은 물로 씻어 더 깨끗하고 눈을 희게 빛난다.

내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초등학교 주위에 감나무들이 많았다. 그 감나무들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거기 있었다. 나는 계절을 따라 아이들과 감나무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감잎이 진 가을이면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학교 뒤에 있는 감나무를 향해 돌팽이를 던져 감을 따 먹다가, 감나무 주인인 강 건너 우리 고모가 운동장에 들어서며 누가 우리 강 따 먹었느냐고 고함을 치기도 해서 달려가 내가 그랬다고 늦게 소동을 무마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겨울 감나무

나고 고함을 치기도 해서 달려가 내가 그랬다고 늦게 소동을 무마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유리창을 열어 놓고 감나무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하나둘 감 같은 얼굴로 내 곁에 모였었다. 겨울이 와서 감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거나, 가지마다 가만가만 쌓인 눈이 여기저기서 천천히 허물어져 떨어지는 모습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득해지는 고적함을 가져다주었다.

감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검어진다. 다른 나무에 비해 몸이 검고, 투박하고 까만 가지들은 세월이 갈수록 단아해져 가고 풍위를 갖추어 간다. 감나무는 찢어지지 않고 부러진다. 찢어지지 않고 후! 부러진 내편은 얼마나 고운, 흰색인가.

뻘이나가며 적당한 길이로 구부러진 멋스러운 마디의 검은 가지에 얽힌 흰 눈의 대비는 수목의 경지다. 감나무도 나이가 들고 고목이 되어 이 가지 저 가지가 죽어가는 그 꾸밈새 없는 모습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 평생을 살면서 마을을 이해하여 그에 알맞은 마음을 곁에 쓰며 살아 온 선량한 동네 어른처럼 믿음이 간다. 나이가 들어가며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다듬어 살아 온 세월의 자세로 다문다문 열린 감 같은 시를 쓰고 싶을 때가 있다.

새잎 피는 봄날, 내 책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사인을 이렇게 해 준다. '감나무에 새잎 피어 좋은 날, 임 만나러 가고 싶은 날'. 잎이 피면 잎이 피고, 감꽃이 피면 감

꽃 핀대로, 땀방울이 열려 있으면 그런대로, 감잎이 다지고 붉은 감만 달고 서 있으면 또 그런대로, 빈 나무로서 있으면 그런대로 검고 단단한 골격을 갖춘 자세를 견지한다.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재래종 붉은 감들이 가시덤불 속에서 눈을 하얗게 쓰고 꽁꽁 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농부들의 일평생 같아 눈 맞는 감처럼 마음은 춥다.

감나무는 농촌 사람들에게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소득원이었고, 농촌의 풍경을 사시사철 소박하고도 조촐하게 그려주던 나무였다. 옛날에는 집집이 마당 가나 뒤 안에 감나무들이 있었다. 큰 집 뒤 안 장독대에 감나무가 있었다. 뒷집 지고 서서 서리맞은 붉은 감을 바라보면 큰아버지의 등은 얼마나 다정하고 말라가는 꽃감이 걸린 처마 밑들은 얼마나 정다웠던가. 감나무는 순박한 삶을 가꾸어 온 우리네 저 유구한 농부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해 온 셈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감장까지 끝내고 회관 아래쪽에 여기저기 누워 '비상 게임'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기도 한다. 가누기도 힘든 몸으로 자다 일어나 문고, 뒤척이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나라의 안부를 묻는다. "어찌게 되어가? 날씨도 추운디, 많이 모였네."

오늘 밤도 마을 회관에 모여 텔레비전 보다가 어둑어둑 집으로 돌아 들 간다. 회꽃피는 날 밤이 날린다. 어둑 속이다. 강물 소리가 휘몰아친다.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감나무가 어둑게 서 있다.

종교칼럼



정현 광주 침상사 주지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는 매우 특이하게도 사찰 안에 성문이 있다. 일주문을 지나 아늑막한 동산을 오르면 얼마 안가 제법 넓은 평지가 나타난다. 바로 그 위에 흥예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성문이 서 있다. 생긴 것은 누가 봐도 성문이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벽이라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특이하다.

왜 이 자리에 사찰의 건축 양식과 아무런 상관없는 성문이 있을까? 속세의 번잡함에 잔뜩 주눅 든 일주문과 달리, 흥예문은 동산을 조금만 올라 가면 멀리서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낙산사를 방문하는 이들은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낙산사에 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촌부의 눈에 성문 안 도성이 별천지라 느껴지듯, 흥예문을 지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바닷가 아늑막한 동산에 넓게 자리한 낙산사는 온 도량이 기도처이고 온 도량이 수행처이다. 이곳이야말로 속세를 벗어난 곳, 즉 출세간(出世間)이다. 흥예문은 세속을 떠나는 문이자,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성문으로 지은 이유가 저절로 수증된

청산은 나를 보고

다. 온갖 번뇌로 물든 속세로부터 수행도량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일찌기 나옹 스님은 이렇게 노래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남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관광하기만 해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도 힘들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거나, 속세에 살더라도 속진(俗塵)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나옹 스님이 권하는 올바른 처세술은 "말없이, 티없이, 성남도 탐욕도 내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 된 자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나 팍팍한 이 사바세계에서 내 삶의 나그네가 되어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얼마 전, 먹통이 되어버린 컴퓨터를 고치려고 시내에 나갔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막막한 도로 위에서 한참을 보냈다. 서비스센터에 도착해서는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리느라 또 한참을 기다렸다. 거의 두어 시간을 허비한 끝에 겨우 얻은 대답은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라는 것이 전부였다. 피곤과 허탈 그리고 짜증이 겹쳐지만 어쩌랴 싶어 돌아오는데 시간은 벌써 5시를 훌쩍 넘겨 버렸다. 배가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비어 있는 넓은 자리들이 많은데도 굳이 비좁은 1인용 테이블에 앉으라고 강권한다. 다시 또 짜증이 올라오지만 역시 참았다. 나이 어린 일반생이 무슨 죄라 싶었다.

나는 "말없이,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 "물처럼 바람처럼" 살고 싶어도 주변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 같은 별볼일 없는 중생이 나옹 스님의 당부대로 일상을 꾸려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지경이다.

기도하고 예불하며, 낙산사에서 1박2일 동안 머물렀다. 지내는 내내 "말없이, 티없이 그리고 맑고 깨끗하게" 지내고자 노력했다.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지내려 하였다. 내 안의 성냄과 탐욕도 잠시나마 힘을 잃은 듯했다. 낙산사에서의 1박2일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옹 스님의 속내가 조금은 가슴에 와닿는다.

세상에서 제일 못한 사람은 제 못한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나의 게으름을 언제까지 남 탓, 세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평생을 남 탓만 하고 산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낙산사 같은 기도처가 이 사바세계의 한가운데 있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허우적거리다가도 낙산사 같은 빼어난 도량에서 하룻밤 기도하면 잠시나마 어리석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소유물의 주인이 되고자 함도 아니다. 남 뒤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잠시 빌려 쓰는 의미를 가진다. 다른 이들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과 나란히,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음보살님은 낙산사 원통보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가 곧 나의 수행처요 나의 기도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옹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다.

'같이 성장'의 한 해를 보내며

할 것이다. 또 파트너십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강점이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같이 성장'의 가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작동의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같이 성장'의 가치를 경영과 사업에 녹여 올 한 해 동안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쪽방촌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쪽방 상담소'를 개소해 운영했으며,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인력사업도 새롭게 펼쳤다.

또한 '제3기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통해 모든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가 단일임금 호봉제를 적용받고 건강권 등 복지 혜택을 누리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을 더욱 촘촘히 수행하기 위해 돌봄센터를 혁신하고 연구, 교육, 매뉴얼 제작 등으로 포괄적 돌봄체계를 구축한 것도 '같이 성장'의 목표 아래 일구낸 결과다. 본부와 산하시설 직원들이 함께 해 온 다양한 ESG 활동은 '2024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인정기관 지정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와의 '같이 성장'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성장'의 목표 도달은 쉽지 않음에 분명하다. 잘못된 설계나 실행 과정, 혹은 협력

구조에서 빠듯할 경우 원래의 목표와 동떨어질 수 있다. 다양한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협력력이 중단되거나 하면 자원이 낭비되고 계획했던 수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경험 상 '같이 성장'의 효과를 모두가 확실히 체감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무게도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같이 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역할을 정의하고 공공성 우선의 정책과 사업,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여야 함을 지난 1년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아주 중요했다.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문제 해결에도움이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같이 성장'의 디딤돌이 제대로 놓아지는 것 같다.

이제 곧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나눔과 연대의 따뜻함이 더욱 빛나는 시기가기도 하다. 한 해 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12월이 단순한 마지막 달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새해에도 힘든 일 있겠지만 함께 노력해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같이 성장하자고' 손 내밀어 본다.

社說

여당은 국민 요구대로 탄핵표결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 계엄 관련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라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혀 자신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던 국민의힘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탄핵 투표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응할 법률적 논리를 미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탄핵만을 막으려 했던 여당 의원들의 실없는 주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 담화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으며,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쳤냐"는 표현을 쓰며 탄핵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치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탄핵을 앞두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확실히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론과 정치권의 탄핵론에 힘만 실어주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다.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정당별 의석 배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이 통과된다. 12일 오후 5시 현재 이미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명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요즘 여당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정하던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1차 표결처럼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분노는 견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의 요구대로 표결엔 동참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월급통장을 사장이 관리하다니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급여통장을 사업주가 관리하거나 급여통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주노동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 개최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집단담화'에서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이주노동자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2024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의 월급 평균은 259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숙식비용(52.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공제항목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20.5%에 달해 한국 법률 교육과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없다'고 답한 이주노동자가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무시간의 경우 57.7%가 하루 평균 9-10시간 일하고 있으며, 11-12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12%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64.6%가 부당 대우에 대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으며, 45.8%가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신고, 29.2%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는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한국 노동시장에 경쟁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들의 건강한 노동권이 보장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종대왕은 훌륭하다. 그가 만든 한글은 만능이다. 사춘기 아들을 둔 아빠는 세종과 한글의 위대함을 매일 체험할 수 있다. 사춘기 사내 아이는 모든 답을 '네' 한 마디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밥먹었니? '네'. 학교는 어땠니? '네-에'. 아들은 숙소에서 기거하며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아빠의 안부를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헬기에서 중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 잔디밭에 내렸고, 국회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인근에 있던 의원은 가로막는 경찰과 군인을 피해 국회 담을 넘었고, 누군가의 아빠-엄마이기도 한 국회 보좌진은 피를 흘리며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결혼을 앞둔 새신랑 보좌진은 얼굴에 아홉 바

늘을 봉합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국회 의원들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끝내 계엄을 막아냈다. 새내기 보좌진도 공포에 떨면서도 고함을 지르며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도 과거와는 달랐다. 탄장을 채우지 않거나 총구를 아래로 향해 사교의 위험을 줄였다.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특수부대였지만 국회 관계자-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충들을 피했다. 무엇보다도 세종의 후예인 시민은 '한글'보다 더 훌륭했다.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로 달려와 국회 주변을 감시하고 국회를 막았다.

다. 뒤늦게 국회에 도착한 국회의원의 월담도 시민이 도왔다. 민주주의는 늘 그랬다. 시민의 연대와 희생이 있었다.

아빠 괜찮다. 이날 사춘기 아이들의 걱정을 샅년 몰상식한 어른들의 계엄은 훌륭한 대다수 어른들이 잘 막아냈다. 아이가 어른을 격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어른들이 있으니 '아름다운 사춘기'를 마음껏 즐겨.

/오광복 서울본부 부장 kroh@

괜찮아요?

기 고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12월 달력과 마주하는 순간 알게 된다. 끝자락에 서면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는 순간 성취와 아쉬움은 본능적으로 측정된다.

숫자로는 끝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공존의 시기! 12월 달력 한 장은 이렇듯 회한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오묘한 전령사 역할을 한다.

특히나 국가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당혹, 희망과 연대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들이닥친 올 12월에는 이러한 양가 감정이 더욱 극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잊을 수 없는 2024 피날레다.

돌이켜보면 '같이 성장'을 화두로 가열하게 달려온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도, 일터에서도, 지역사회적으로도 '같이 성장'은 때려야 할 수 없는 과제였다.

쉽게 들리지만, '같이 성장'은 구현하기 쉽지 않은 가치다. 불공정을 없애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건 누구라도 짐작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